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개최 우수기관 감사패 수여

‘2017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가 19일 개최됐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제고 및 수주 경쟁력 확보,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위원회에는 박재명 도 건설교통국장, 박현창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최하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장, 임종윤 강원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함관현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 정경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대한건설협회 도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는 건설산업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유재규기자

도, 국과장급·실무승진 대상자 확정

속보=평창동계올림픽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 마지막 국과장급 및 실무승진 인사(본지 12월 13일자 4면 등)가 오는 29일 발표되는 가운데 각급 승진 대상자들이 확정됐다. 도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국과장급 승진 다면평가(14~15일)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장급 승진 1순위는 윤성보도 관광마케팅과장이다. 과장급 직위승진은 12명(행정9·기술2·연구지도직1명)이 확정됐다.

행정직은 △김병렬(공무원노사담당) △김창규(총무) △변상득(의사

) △서화진(성장동력) △오인환(노사협력) △윤종걸(경리) △이시한(문화정책) △정경호(농촌정책) △정영미(기획) 담당(가나다 순) 등이다. 수산직은 김대영(정책총괄담당), 토목직은 송삼규(도시토목), 보건연구직은 정경진(식품분석과) 담당이다. 도는 각급 승진대상자 심의 결과를 마무리함에 따라 국장급 교육과전 대상자 5명을 선발, 인사안 작업에 나선다. 이번 인사에서는 태백시와 영월군, 양구군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도 단행된다. 박지은

건협 강원도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참석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19일 강원도에서 개최한 ‘2017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에 참석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 경기 전망과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제고 추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연구 용역에 대한 보고, 건설공사 발주정보 조기 제공을 통한 지역 업체 수주 지원,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오인철 회장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는 타지역에 비해 재정 사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 건설산업에는 치명적”이라며 “정부의 SOC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상적인 공사비의 정상화와 최근 사회적 관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이나 노후 인프라 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회는 건설산업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문순 강원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내년 SOC예산 1.3兆 증액
일자리 1.8만개 창출 효과”**

건산연, 파급영향 분석... “경제성장률 0.08%p 증가”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국회에서 1조3000억원 증액되면서 일자리가 1만8000개, 경제성장률이 0.08%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내년 SOC 예산 증액 파급 효과를 이같이 예상했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SOC 예산안은 올해보다 4조4000억원(20%) 감축된 17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사상 최대 감축 폭이었다. 건산연은 원안대로 SOC 예산이 확정될 경우 취업자가 6만2000명 줄고, 경제성장률은 0.25%포인트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실제 SOC 예산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조3000억원 증가한 19조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안과 국회 확정 예산 간의 차이가 1000억~400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SOC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SOC 분야는 다른 지출에 비해 재정 승수효과와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는데, 지출이 증가한 만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2면에 계속

‘적정 공사비’ 산정 해법 나온다

조달행정 발전방안 마련... 공사원가 제비율 적정성 검토 후 상향 추진

조달청이 적정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에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행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공사원가 제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요기관에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노무비의 부당삭감을 예방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19일 향후 5년간 조달행정의 밑그림이 될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관련 조달행정 개선방안을 내놨다.

▶관련기사6면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 중 건설산업 관련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합리적 조달가격 결정을 위해 공사원가 제비율 검토를 통해 적정가격의 반영을 추진한다.

제비율은 일반관리비, 간접노

수요기관에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공공시장 부당삭감 근절

무비, 이윤, 기타경비 등 간접비 요율을 말한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집행 때 공사비 산정을 위해 제비율 적용기준을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예정가격 작성 때 기초가 되는 것으로 적정공사비 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지난 5월 ‘예정가격 산정방법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수행 중이다.

용역은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대한 조정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은 △현행 제경비의 분석방법, 분석 자료, 적용비율의 적정성 검토 △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적정한 제경비 산정방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르면 연내 나올 용역 결과를 검토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원가 제비율의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설공사수요기관이 노무비를 누락시키거나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부당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수요기관에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후 조달청은 공사 원가 검토시 노무비 정상반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 공사에 대한 시방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한다. 조달청 ‘가이드시방서’를 작성해 제공하고, 표준시방서에 포함된 내용은 시방서 작

성에서 제외하도록 해 부담을 덜어준다. 이렇게 되면 시방서 작성이 기존의 2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품질을 보장하는 조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사 하자의 원인, 조치 및 방지대책 등 하자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공·민간 시설 사업 전반에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앞으로 5년간 공공조달 혁신 동력은 고객, 시장과 소통하는 조달행정에 있다”면서 “고객 관점에서 합리적 가격결정, 품질보장 등 조달의 본질적인 집행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성장·공정경제 등 국가 경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기자 newspia@